

극장 용 10주년 YONG·10·FESTA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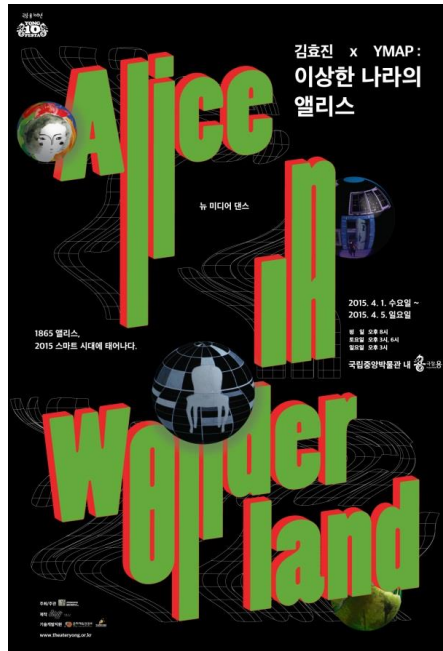


뉴 미디어 댄스

‘김효진 x YMAP :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’

스마트 시대에 새롭게 태어난
신개념 고전 동화 <이상한 나라의 앨리스> !

국립박물관문화재단 주최, 와이맵 제작



○ 공연일시: 2015. 4. 1 (수) ~ 4.5 (일)

평일 오후 8시 / 토요일 3시, 6시 / 일요일 3시

○ 장 소 : 국립중앙박물관 내 극장 용

(4호선 . 중앙선 이촌역, 간선버스 502번, 400번)

○ 입장료 : 학생 할인 30%, 학생 30인 이상 전석 1만원

○ 예약 및 문의 : 1544-5955 (www.theateryong.or.kr)

환상적인 미디어 댄스와 함께 꿈속에서 아버지와 앨리스가 함께 떠나는 여정!



어느 퇴근길, 아버지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앨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. 집으로 돌아와 책을 읽어달라는 아들에게 <이상한 나라의 앨리스> 책을 읽어주다가 잠에 드는 아버지는 꿈속에서 앨리스를 만나게 되고 함께 이상한 나라를 여행하며 늙은 썩기벌레, 체셔 고양이와 말장난 같은 대화를 나눈다. 3 월의 토끼와 잠자는 들쥐, 모자장수와 엉망진창 티파티를 한 후, 카드여왕과의 크로켓 경기에서 진 앨리스를 따라 도망치다 그만 앨리스를 놓쳐버리고 만 아버지는 이상한 나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한참을 헤매다가 아들이 부르는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다.

1865 앨리스, 2015 스마트 시대에 태어나다!

미래의 세대에게 전해주고 싶은 기성세대의 이야기이기도 한 이 작품은 아이에게 <이상한 나라의 앨리스>를 선물하고 싶은 한 아버지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한다. 동화책을 읽어달라는 아들에게 <이상한 나라의 앨리스>를 읽어주다 잠이 드는 아버지의 꿈속에서 화려한 미디어 아트 영상과 댄스, 음악이 모두 다함께 신비롭게 어우러지며 2015 년, 스마트시대에 어울리는 미래형 <이상한 나라의 앨리스>로 재탄생된다.

추억 속의 <이상한 나라의 앨리스>를 새롭게 재발견할 수 있는 본 공연에서는 앨리스 뿐 아니라 삼월의 토끼, 늙은 썩기벌레, 잠자는 들쥐, 모자장수, 카드여왕 등 재미있고 특색 있는 동화 속 캐릭터를 만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어린 아이부터 동심을 간직한 어른 관객까지 모두가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이상하고 신비로운 꿈의 세계로 빠져들 수 있는 이색적인 휴식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다.

■ 제작진

연출 및 안무 김효진 | 예술감독 김형수 | 음악감독 표신엽 | 작곡 표신엽, 문수영

사운드디자인 문수영 | 사운드공간디자인 이수용 | 조명감독 민경수

의상디자인 이호수 | 무대감독 안경호 | 무대디자인 박은혜 | 무대제작 타프

영상 제작 와이맵 | 영상디자인 손시울, 정재은 | 영상기술감독 정광조 | 촬영 정민건

■ 와이맵 소개

YMAP(Your Media Arts Project)

영국 에딘버러 국제페스티벌 공식초청작 '마담 프리덤'으로 주목받은 연출가이자 안무가 김효진이 이끄는 미디어퍼포먼스그룹 와이맵은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공연에서 미디어가 배경이 아닌, 퍼포머(Performer)로서 당당히 출연시킨다. 와이맵은 융복합 공연의 대표적 장르로 떠오르는 미디어 퍼포먼스를 소개하기에 가장 적합한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미 국내외에서 많은 초청을 받으며 작품성과 실력을 입증해왔다.

[주요 이력]

2014 미국 CalArts(The Sharon Disney Lund Dance Theater) 초청 <댄싱러브> 연출, 안무 및 출연

2014 미국 REDCAT 인터내셔널 아티스트 프레젠테이션 공식 초청작 <마담프리덤> 연출, 안무 및 출연

2014 제 21 회 무용예술상 연기상 수상

2013 영국 에딘버러 국제페스티벌(EIF)공식초청작 <마담프리덤> 연출, 안무 및 출연

2012 한국춤비평가상 베스트작품상 <이상한 나라의 앨리스> 수상

2011 한국공연예술센터 YMAP 공동제작 <이상한 나라의 앨리스> 연출 및 안무